



2만불 시대

중소기업이 일어납니다



중소기업청  
브리핑

제11호 2004년 3월 16 (화) 공보담당관실 TEL.042-481-4329~32 / FAX.042-472-3264

## 08년까지 중소·벤처기업 일자리 12만개 창출

중기청은 '08년까지 12만명(매년 24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계획은 최근 청년실업자(45만명)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기업 및 금융업은 고용증가 없는 성장이 현실화됨에 따라, 그 동안 꾸준히 일자리를 창출해 온 중소·벤처기업이 일자리창출 원천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일자리창출 비전」 및 「노사정 사회협약안」을 중소기업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실행안으로 마련하게 되었다

중소·벤처분야 일자리 창출계획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여건조성에 중점을 두고 ①창업활성화 ②빈일자리 채우기 ③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지원 등 세 분야 20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창업활성화를 통해 약 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업관련 건축·입지·환경·공장설립 등의 인·허가 규제를 상반기 중 전면 재검토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 일괄의제처리 대상(22개법률, 53개인·허가)확대 등 금년 하반기에 창업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창업상담 및 정보제공을 위해 창업민원단 일창구제와 창업민원 온라인화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IT·바이오 등 신성장산업 및 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신산업분야 창업사업계획을 전문기관이 평가하여 창업준비 및 창업 초기 정착화 비용을 2억원 내에서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신성장동력 산업창업』 지원사업 도입을 검토하고

시제품 개발을 완료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규모이상 고용창출을 조건으로 투자하는 『일자리창출펀드』(400억원) 결성을 추진키로 하였다.

창업자금(3천억원)지원시, 재무 및 매출실적 위주에서 사업성·기술성 등 미래가치위주의 신용으로 평가하여 지원하고 창업보육센터를 연구형에서 생산형으로 전환(35개 센터)함과 함께

소상공인지원센터(현재 60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지원자금을 4천억원 규모(현재 2천억원)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청년층의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창업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분야별 전문강좌 위주로 확대 개편(21개 과정→80개 과정)하고 전국 5개 대학에 창업대학원 설치를 지원키로 하였다.

중소기업의 빈일자리 채우기를 통해 약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우수 중소기업 및 젊은층의 취업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하고 생산현장 작업환경 개선, 국민주택우선분양 등 복지지원 수준을 향상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전환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앙회·벤처협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빈일자리를 일제히 조사

한 후, 대학 등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현장을 순회, 일자리를 연계하는 『중소기업현장투어』사업과 업종별 조합을 통해 채용과 연계한 교육훈련(5개월) 후, 취업시키는 청년채용패키지지원사업을 신규로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04예산:175억원)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우수 중소·벤처기업이 참여하는 『전문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온-오프라인상에서 구인·구직자간 연계활동을 강화함과 함께 벤처기업협회 등 민간단체내에 「1社1人채용운동본부」를 설치하여 청년실업자 채용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등 구인·구직자간 현장 연계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약 4만개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스타펀드」(1억불)를 신규로 결성하고 ASP센터의 추가 설치 및 글로벌파트너십을 확충하는

등 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통한 리딩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기술혁신개발사업(1,204억원), 산학연컨소시엄(391억원), 기술지도대학(30억원) 등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08년까지 1만개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사업을 대폭 확대(‘03:112명→’04:1천명) 추진하고 지식서비스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소기업에게 시설·운전자금을 지원(‘04년:700억원)해 나갈 계획이다.

▶ **창업벤처국**  
**창업벤처정책과**  
**(042-481-4494)**

## 2,400억원규모의 Private Equity Fund 결성 계획 발표

중기청은 '04년중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스타 펀드』 등 대규모 Private Equity Fund 결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금년에 추진되는 Private Equity Fund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벤처투자 이후 성장 단계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Private Equity 시장의 구축을 통해 투자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新主중심의 “벤처투자”에서 성장단계까지 확대하여 비공개 중소·벤처기업의 지분(신주, 구주포함)을 취득하고 경영 지원을 통해 기업 가치 제고(이를 위해 경영권 자매도 가능)

시킨후 매각(공개시장, M&A, Buy Out)함으로써 지분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투자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번에 결성을 추진할 펀드를 살펴보면 먼저 수출중소기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Global Star Fund』를 1억불규모로 결성하고 비공개 중소·벤처기업의 M&A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조정 추진을 위해 『M&A펀드』를 300억원 규모로 결성한다

벤처투자의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벤처 투자의 선순환 체계 확보를 위해 『프리코스닥 유동화 펀드』를 300~500억원 규모로 결성하고 투자를 통한 근본적인

고용 창출을 위해 『일자리 창출 펀드』(300~500억원)와 대·중소기업의 협력과 정부 지원으로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대·중소기업협력펀드』(300~500억원)를 결성하는 것 등이며, 총 700억원의 정부 기금을 출자하기로 하고, 금년중 400억원 규모를 우선적으로 출자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창투자 등을 대상으로 4월중 펀드별로 신청상황에 따라 2개 이상의 조합을 선정하여 10월까지 펀드를 결성한다

▶ 창업벤처국  
벤처진흥과  
(042-481-4419)

## 청년실업자 5,500명에 교육과 채용을 일괄 지원

중기청은 악화되고 있는 청년 실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동시에 완화하기 위하여 175억원을 투입, 청년 미취업자 5,500명에 대해 교육과 채용을 일괄 지원하는 「2004년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번 사업의 특징은 학교 교육이 산업계 요구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①중소기업 채용수요 조사  
→② 구인·구직 매칭→  
③채용직종에 맞는 교육

과정 개설→④청년 미취업자 맞춤형 교육 실시→  
⑤ 채용을 일괄 지원하는 것이다.

본사업에 참여하는 미취업자는 5개월간 실무교육과 교육기간 동안 월 40만원 내외의 연수수당을 지급받는다.

또한, 소정의 연수과정을 수료한 미취업자는 중소기업의 업종별 조합과 채용알선 전문기관 등을 통하여 14만여개에 이르는 중소기업 빈 일자리로 취업이 적극 알선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와 청년 미취업자는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전화:02-2124-3213)에 신청하면 된다.

▶ 기업성장지원국  
인력지원과  
(042-481-4512)



## 중소기업 수출, 5년 연속 증가세 유지

2003년도 중소기업 수출 실적은 미-이라크戰, SARS의 발발, 화물연대 파업 등 불리한 여건하에서도 전년대비 19.6% 증가한 817억불을 달성, 1999년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또한 벤처기업 수출은 23.8% 증가한 74억불을 기록하여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벤처기업의 수출 기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 부문에서 가장 큰 특징은 아시아권에 대한 중소기업 수출비중이 전체의 58.8%를 차지하여 특정지역에 수출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시장인 對중국 수출비중도 20.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사스의 발발로

인한 아시아지역의 수요 위축 등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국시장의 높은 성장세와 함께 아시아 지역의 FDI 증가 및 경제 활성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앞으로도 동 지역으로의 중소기업수출 호조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 중소기업수출의 주요 특징을 보면

중소기업수출은 미-이라크戰, 사스의 발발 및 화물연대 파업 등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스의 영향을 반영한 2/4분기를 제외하고는 월평균 20%이상의 높은 상승세를 시현하였고

품목별로는 인조장섬유직물, 의류 등 경공업제품이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등 중화학공업 제품이 선전하였다.

국가별로는 對중국 수출이 전년대비 29.5%(38억불) 증가한 168.4억불을 기록하여 미국을 제치고 2년 연속 제1의 수출 시장으로 위치를 확고히 하였으며, 홍콩, 대만 등 아시아지역 국가의 증가율이 두드러진 반면, 對미국 수출은 3.8%(4.7억불)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성장 잠재력 등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BRICs시장의 경우 '02년 149억불에서 29.1% 증가한 193억불을 기록하여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브라질의 경우 15.1%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 기업성장지원국  
해외시장과  
(042-481-4465)